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역사, 멋지게 열어달라”

마지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임식서 밝혀
‘서남권 첨단산업 비전 보고회’로 임기 마무리

광주광역시 마지막 시장인 강기정 시장이 30일 이임식을 마친 뒤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등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며 민선 8기 4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제14대 광주시장 이임식’을 거행했다. 이임식은 광주시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성과 영상 상영, 감사패 전달, 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이날 지난 4년간 함께 뛰었던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지막 광주광역시시장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응원했다.

강 시장은 “전여하는 광주광역시 공직자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임사를 통해 “상대를 꺾어보고 헤아려야 하기에 누군가를 친애하려면 제법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 4년간 함께 우여곡절을 겪

으며 저는 여러분을 친애하게 됐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 4년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워서 이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면 제 성과 중 최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여윌었던 시간에 가장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지난 4년 우리 공직은 더 정열해졌고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졌고 광주와 전남은 특별시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와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는 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뤄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계엄, 호남 소외, 아사 직전의 재정 상황 등에도 굴하지 않고 좌절과 실패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공직자와 시민들 덕분에 참 행복했고, 제 역할은 여기까지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지난 4년간 함께 뛰었던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다”며 “광주광역시의 마지막 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제가 가져가겠다. 여러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역사를 멋지게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 시장은 2022년 7월1일 ‘내☆일

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가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광주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군공항 이전, 통합돌봄 전국화,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복합소

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오월영령에게 참배했다.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새마을문고 광주서구지부는 지난 2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제3회 전국어른이동요부르기’를 개최했다.

전국 어른이 동요로 하나됐다...광주서 감동의 하모니

제3회 전국어른이동요부르기 성황...12개 팀 본선서 열창
300여명 관객 참여...새마을문고인 재능기부로 의미 더해

광주 서구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어른이 동요 경연대회가 세대를 잇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새마을문고 광주서구지부는 지난 29일 광주 서구에서 ‘제3회 전국어른이동요부르기’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규모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는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팀들은 예선을

거쳐 선발됐으며, 최종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동요를 통해 순수한 감성과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동요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객석에서는 공연마다 큰 박수와 응원이 이어졌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음향과 사회, 사진 촬영 등 행사 운영 전반이 새마을문고 회원

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져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로도 주목받았다.

김옥자 새마을문고 광주서구지부 회장은 “순수한 동심으로 세대를 잇는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돼 기쁘다”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동요의 선율 속에서 위로와 화합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동요를 매개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광주 서구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사진=최기환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농협,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4만2000명 동참 국내·외 인력 7만2000명 증가...영농철 인력난 해소 기여

농협 전남본부부는 4월부터 6월까지를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하고 병행형 임직원과 농협 육성조직, 유관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대대적인 일손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전남은 양파와 마늘, 매실 등 주요 농산물의 수확기가 상반기에 집중돼 영농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에 전남본부부는 농촌일손돕기와 함께 농촌인력 증가사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동농인력이음사업 등을 병행하며 농업인의 적기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농촌일손돕기에는 병농협 임직원과 유관기관, 대학생 자원

봉사자 등 총 4만2845명이 참여했다. 또 국내·외 노동인력 7만2460명을 전남지역 농가에 중개해 영농철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광주대와 순천제일대 등 업무협약 대학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은 양파와 밤호박, 블루베리, 매실 수확은 물론 복숭아와 사과 적과 작업에도 참여하며 농가의 일손을 보탰다.

이와 함께 인접 시·군 간 품앗이 지원을 비롯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합동 일손돕기, 농협 육성조직 참여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인력 지원을 추진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썼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무더운 날



씨에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준 농협 임직원과 대학생, 지자체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촌일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4개 기관 합동 ‘사랑의 김치 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임직원 30명 참여 합동 봉사
사회보호계층 대상 나눔 실천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지역 보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유관기관 공동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자립준비청년과 저소득 취약 가구 등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3월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인 광주도시공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직원 30여명이 직접 현장 김장 봉사에 참여해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여름 김치는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광



광주도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지역 보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유관기관 공동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광주도시공사

주노동위원회복지지원센터, 농성빛어음체 복지관, 행복드림중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신속히 전달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합동 봉사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 내 사회 보호계층의 복지 공백을 채우고, 민관이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방침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기관들이 힘을 모아 만든 김치가 우리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바람개비마을네트워크, 위기아동가정 지원

꿈나무사회복지관에 성금 전달

꿈나무사회복지관은 30일 바람개비마을에너지네트워크가 위기아동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14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꿈나무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중인 위기아동가정의 사연을 접한 바람개비마을에너지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위기아동가정의 긴급 생계 지원과 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바람개비마을에너지네트워크는 30일 위기아동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140만원을 꿈나무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바람개비마을에너지네트워크는 주민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자치단체다. 꿈나무사회복지관과 함께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로 안전관리와 기후환경 캠페인, 지역 환경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기후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금은 참여자들이 주민회해 지원기초교육과 소통방기초교육을 이수

하는 과정에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주민 간 갈등을 자치와 토론으로 해결하고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선순환 사례로 평가된다.

바람개비마을에너지네트워크는 지난 해에도 꿈나무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기탁했으며, 복지관이 운영하는 나눔찾집 등 다양한 후원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고 있다.

강명관 꿈나무사회복지관장은 “지역 현안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물론 주민 간 소통과 갈등 해결 문화를 만들어가는 바람개비마을에너지네트워크의 실천이 위기아동가정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다”며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전달돼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